

# 연변룡정커시안, 개막전서 광주표범에 0대4 참패

—기대 컸던 시즌 첫 경기, 기대 이하로 마무리



3월 15일 19시 30분,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광둥성 광주시 월수산경기장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라운드 경기에서 광주표범팀(이하 '광주팀')에 0대4로 대패했다.

량상 18도가량의 흐린 날씨 속 진행된 이날 경기엔 연변팀 이기형 감독은 19번 동가림에게 골문을 맡기고 24번 리룡, 15번 서계조, 3번 왕봉, 20번 김태연으로 수비선을 구축했으며 31번 천창걸과 33번 호재겸, 6번 리강, 5번 도밍구스, 7번 리세빈으로 두터운 중앙선을 구성했다. 10번 포부스로 공격선을 이룬 4-5(2-3)-1 포수편형 진형을 들고나왔는데 양병업과 황진비, 박세호, 리달, 허문광 등은 후보석에 앉았다.

광주팀 러빙 감독은 23번 진준림을 문지기로, 2번 진국량, 5번 강적홍, 38번 동동욱, 37번 상은으로 수비선을, 25번 왕건명, 34번 후에, 26번 마준량으로 중앙선을, 11번 니강, 7번 레앙 카로스, 20번 로싸로 공격선을 구축한 4-3-3 공격형 진형을 들고 나왔다.

두 팀 모두 전부의 주력을 동원한 진영이었다.

경기엔 앞서 연변팀 선수들은 일찌감치 현장을 찾아 원정 응원엔 나선 장저후연변축구팬클럽의 100여명 회원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경기 초반부터 광주팀은 전면 압박을 펼치면서 공격선을 연변팀 통제구역까지 밀고 들어왔고 연변팀은 차분하게 응했다. 경기 2분경 천창걸이 한차례 공격 기회를 리용하여 강슛을 날렸지만 상대 키퍼가 쳐냈다. 경기 4분경 광주팀은 프리킥 기회를 리용하여 공격을 조직하였으나 연변팀의 골문에 위협을 조성하지 못했다.

경기 5분이 지난 후 연변팀은 매끈한 배합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듯하였고 양쪽 측면을 리용하여 빈번하게 공격을 조직하였으나 위협적인 공격은 조직되지 못하였다. 3명 용병을 앞세운 광주팀은 연변팀의 금지구역 안에서 수차 기회를 창조하였지만 연변팀 밀집방어에 막혔다. 광주팀의 첫 슈팅은 10분경 로싸의 발끝에서 나왔으나 골문 밖으로 흘러갔다.

경기가 10분이 지나면서 광주팀 선수들의 동작이 거칠어졌고 연변팀은 내심하게 기회를 찾는 듯하였다. 경기 15분경 연변팀의 문전에서 혼란한 상황이 나타났지만 연변팀 수비수들이 잘 막아냈다. 연변팀도 2, 3차의 비교적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하였으나 상대의 골문은 가리지 못했다.

22분경, 광주팀이 연변팀 금지구역 안으로 밀고 들어왔으나 로장 김태

박을 펼치면서 공격선을 연변팀 통제구역까지 밀고 들어왔고 연변팀은 차분하게 응했다. 경기 2분경 천창걸이 한차례 공격 기회를 리용하여 강슛을 날렸지만 상대 키퍼가 쳐냈다. 경기 4분경 광주팀은 프리킥 기회를 리용하여 공격을 조직하였으나 연변팀의 골문에 위협을 조성하지 못했다.

경기 5분이 지난 후 연변팀은 매끈한 배합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듯하였고 양쪽 측면을 리용하여 빈번하게 공격을 조직하였으나 위협적인 공격은 조직되지 못하였다. 3명 용병을 앞세운 광주팀은 연변팀의 금지구역 안에서 수차 기회를 창조하였지만 연변팀 밀집방어에 막혔다. 광주팀의 첫 슈팅은 10분경 로싸의 발끝에서 나왔으나 골문 밖으로 흘러갔다.

경기가 10분이 지나면서 광주팀 선수들의 동작이 거칠어졌고 연변팀은 내심하게 기회를 찾는 듯하였다. 경기 15분경 연변팀의 문전에서 혼란한 상황이 나타났지만 연변팀 수비수들이 잘 막아냈다. 연변팀도 2, 3차의 비교적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하였으나 상대의 골문은 가리지 못했다.

22분경, 광주팀이 연변팀 금지구역 안으로 밀고 들어왔으나 로장 김태

연에게 막혔고 코너킥 공격은 동가림이 쳐냈다. 24분경, 광주팀의 5번 강적홍이 반칙으로 첫 옐로카드를 받았다. 27분경, 광주팀의 상은이 리세빈의 발끝에 맞혀나온 공을 왼발 강슛으로 연결해 첫 골을 작렬시켰다.

0대1! 연변팀에게는 불리한 국면이었다. 조금 정서가 생긴 연변팀의 배합엔 실수가 생기면서 29분경 카로스가 금지구역 안에서 좋은 기회를 창조, 오른발 슛을 날렸으나 공은 골문대를 스치고 밖으로 흘러나갔다.

33분경, 연변팀의 왕봉이 옐로카드를 받았다. 37분경, 김태연의 부상으로 음바가 교체 출전했다. 38분경, 리룡의 슛이 상대 수비에 막혀나왔고 이어진 코너킥도 막혀나왔다. 39분경, 한차례 패속 반격 기회를 리용하여 광주팀 카로스가 추가골을 터뜨렸다. 두골 다 패속 반격 기회를 리용한 것이었다. 0대2로 격차가 벌어진 연변팀!

경기 추가 시간이 3분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이 추격전을 벌였으나 금지구역에서의 기회 포착 미숙으로 만회골을 만들지 못하고 0대2로 뒤진 채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전은 두 팀 모두 선수 교체가 없이 시작되었다. 46분경, 광주팀의 로싸가 먼거리 슛으로 다시 한번 동가림의 십자관을 뚫었다. 0대3! 너무나 갑작스런 추가골이었다. 동가림의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후 연변팀은 추격의 고삐를 늦추

지 않고 공격을 조직하였으나 상대의 수비선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49분경, 한차례 슈팅 기회를 얻었으나 빨이 상대 수비수에 맞히면서 힘이 빠졌다.

경기 52분경, 연변팀은 한차례 프리킥 기회를 리용하여 호선슛을 날렸으나 진준림이 쳐냈고 코너킥 기회를 리용하여 천창걸이 강슛을 날렸으나 상대의 수비수가 쳐냈다. 55분경, 연변팀은 위치가 비교적 좋은 프리킥을 얻었다. 도밍구스가 주도한 공이 상대 수비벽에 막혔고 그것을 리용한 반격이 다시 한번 연변팀 골문을 위협했다. 64분경, 서계조가 카로스에 대한 전술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았고 66분경, 광주팀의 6번 단운자가 옐로카드를 받았다. 68분경에는 호재겸이 옐로카드를 받았다. 대가가 너무 컸다.

연변팀 선수들이 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었으나 공을 자기 발밑에 통제하는 부분에서 상대에게 밀렸다. 70분경, 허문광이 실수가 많은 리세빈을 교체해 출전했다.

80분경, 광주팀은 니강 대신 하달룡을, 로싸 대신 양학명을 교체 출전시켰다. 84분경, 연변팀은 천창걸을 내리고 17번 박세호를 올렸다.

87분경, 광주팀의 레앙 카로스가 본인의 두번째 골을 성사시키면서 이번 경기 2골 1도움의 영웅이 되었다. 경기 성적은 0대4! 연변팀의 추격의지가 큰 타격을 입는 순간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를 얻고 상대 방도 반격 기회를 얻어 강슛을 날리는 등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지만 경기 성적은 결국 0대4로 굳어졌다.

이날 경기에서 진준림, 카로스, 로싸, 상은 등 광주팀 선수들의 발끝이 비교적 출중했다면 같은 위치의 연변팀 선수들의 발끝은 썩 좋지 못하였고 공처리(절주)에서는 상대보다 반박자 늦은 듯한 표현을 보였다. 또 금지구역 안에서도 기회 창출과 포착이 미숙한 모습을 보여 팬들을 아쉽게 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에 진행된 다른 경기에서 중경동량팀이 홈장에서 청도홍사와 1대1로 비고 남통지운이 홈장에서 상해가정화룡을 1대0으로 이겼으며 룽닝철인이 원정에서 광서평과하룡을 3대0으로 제압했다. 현재까지 광주표범팀이 포 우세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변팀은 오는 3월 29일 15시 30분에 청도 원정에서 청도홍사와 제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날 경기에서 진준림, 카로스, 로싸, 상은 등 광주팀 선수들의 발끝이 비교적 출중했다면 같은 위치의 연변팀 선수들의 발끝은 썩 좋지 못하였고 공처리(절주)에서는 상대보다 반박자 늦은 듯한 표현을 보였다. 또 금지구역 안에서도 기회 창출과 포착이 미숙한 모습을 보여 팬들을 아쉽게 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에 진행된 다른 경기에서 중경동량팀이 홈장에서 청도홍사와 1대1로 비고 남통지운이 홈장에서 상해가정화룡을 1대0으로 이겼으며 룽닝철인이 원정에서 광서평과하룡을 3대0으로 제압했다. 현재까지 광주표범팀이 포 우세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변팀은 오는 3월 29일 15시 30분에 청도 원정에서 청도홍사와 제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 세계급 골프대회서 조선족 선수 5위 차지



올해 중국 국내 첫 세계적 골프대회인 블루베이 LPGA 마스터스가 9일 해남성 령수에서 막을 내렸다. 일본 선수 다케다 레오가 우승을 차지한 동시에 역대 마스터스대회 최대 승리타수를 경신했다.

이번 블루베이 마스터스의 총상금은 250만달러(인민폐 약 1,808만원)로 상승했으며 세계 골프계 최고 수준의 여자선수 108명이 참가했다.

다케다 레오는 지난 시즌 여자 일본투어에서 6개월 만에 7승을 거두며 LPGA 도토 일본 클래식에서 시즌 8승을 거둔 후 이번 시즌 LPGA 풀카드를 직접 획득했다.

결승 라운드에서 다케다 레오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최종 합계 단일 라운드 8언더파, 총성적 17언더파로 우승하면서 역대 블루베이 마스터스 최다 우승타수를 경신했다.

중국대표팀에서는 하목니(何沐妮), 리숙영(李淑瑛), 은약녕(殷若宁) 등 17명의 선수가 결승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들중 조선족 선수 리숙영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결승 라운드 8번 홀에서 이글(2언더파)을 잡아냈다. 4라운드 성적은 69, 72, 70, 71이며 경기 완료후 282타(6언더파)로 공동 5위에 올라 2017년 우승한 풍산산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인민넷-조문판

## '월드컵 예선전 코앞' 중국팀 평가전서 쿠웨이트에 3대1 승

16일 새벽(중국시간), 월드컵 예선전을 준비하며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중인 중국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와 평가전을 가졌다. 리리와 바하라 무의 득점에 상대 자책골을 더하며 중국팀은 3대1 승리로 평가전을 마무리했다. 이번 경기 끝난 뒤 대표팀은 21일 새벽 2시 15분(북경시간)에 펼쳐지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18강전 C조 제7라운드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현재 C조에서는 일본이 승점 16점으로 1위에 있고 오스트랄리아가 7점으로 2위에 머물러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인도네시아와 똑같은 승점 6점으로 차례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18강전 B조에서 승점 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 스타일이 비교적 비슷하며 중국팀 또한 이번 경기를 통해 전술 적응을 시도해보려는 의도였다.

한편 중국팀의 평가전 결과는 팬들을 만족케 하였고 팀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전을 통해 팀 진영의 깊이와 전술의 다양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가전 승리가 공식 경기와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중국팀은 이번 경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더 여유로운 모습으로 앞으로의 두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중국팀은 3월 21일, 원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고 3월 25일에는 항주의 홈구장으로 돌아와 오스트랄리아와 대결한다. 관건이 되는 이 두차례의 월드컵 예선경기로 중국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의 형세가 직접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합



## 원정 개막전 응원엔 나선 장저후 축구팬들

연변팀의 가장 아름다운 제12번째 선수로 불리우는 골수팬들이 올 시즌 첫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에 모였다.

경기엔 앞서 연변팀 선수들은 일찌감치 현장을 찾아 원정 응원엔 나선 장저후연변축구팬클럽의 100여명 회원들을 찾아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좋은 경기를 약속했지만 이날 연변팀은 경기 내용도 결과도 모두 내주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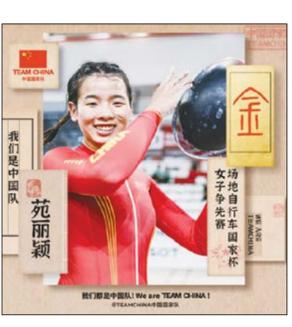
/장저후연변축구팬클럽

## 길림성 출신 트랙 사이클링 선수 원려영 세계기록 돌파

중국사이클링운동협회의 소식에 따르면 토이기 현지시간으로 15일에 열린 2025 트랙 사이클링(场地自行车) 국가컵(원 트랙 사이클링 월드컵) 경기에서 중국 선수 원려영이 여자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을 거머쥐고 동시에 자경경기에서 세계기록을 경신하며 10초 벽을 돌파한 첫 여성선수로 되었다.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원려영은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는데 자경경기 200미터에서 9초 976의 성적으로 세계기록을 돌파하고 결승에서는 2대0의 성적으로 우승을 거두었다. 이는 또 중국대표팀이 2016년 이후 트랙 사이클링 국가컵 경기에서 재차 이 종목의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된다.

경기후 원려영은 자신이 기전술을 운용하는 능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 감독이 그의 개인 능력에 결부해 아주 좋은 기전술 배치를 제정해주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우승으로 2028



년 LA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심신을 얻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0세인 원려영은 길림성 동풍현에서 태어났으며 2016년부터 사이클 운동을 시작했고 2019년에 길림성사이클팀에 합류했다. 그후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베이징올림픽 주기에 중국국가사이클대표팀에 선발되어 2024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참가한 바 있다.

/신화사